



◁승무를 추는 이애주 서울대 교수.

5월 5일 보성 대원사에서 티베트 명상 음악가 나왕케축을 비롯해 천주교 수사, 송광사 학인스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종교음악을 연주하는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대원사 개산 150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 종교음악축제' 이번 출연진중 눈길을 끄는 음악가는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 '나왕케축'. 신비주의적인 뉴에이지 음악으로 명상음악계에서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왕 케축은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평화콘서트를 주도



▷티베트의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케축.

세계평화기원 종교음악축제

5월 5일 대원사서 천주교 수사·학인스님 참여 세계적 명상음악가 나왕케축·이애주 교수 공연

했고, 또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에 나오는 음악을 작곡한 음악가다. 이번 인연 때문에 그는 '달라이라마의 평화사상을 전달하는 음악전법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 '나왕케축'은 불교의 예불의식과 천주교의 미사곡에 맞춰 피리협연을 펼칠 계획이어서 관객들에게 인종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사랑을 나누는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광사 강원 학인 스님들의 전통 예불의식도 펼쳐질 이번 행사에서

는 대원사의 개산을 축하하기 위해 초청된 천주교 베네딕토 고성 본도 수도원 수사 20명이 천주교 전통 미사곡인 그레고리안 성가를 합창한다. 이외에도 시인 이애인 수녀의 '행일과 평화의 노래' 축시낭송,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예능보유자 이애주교수(서울대 체육학과)의 바라춤과 살풀이 춤 공연도 선보인다.

한편 대원사는 개산 1500년 기념 두번째 행사로 5월 11일 오후 4시 한·중·일 삼국 차문화 교류 대회를 연다. (061)852-1755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니르바나 실내악단 정기연주

23일 한전 아트홀센터서 봉축기념 동서 만남

백안의 외국인 지휘자와 불교종창단인 한 무대에 서고, 현악과 피아노, 장구와 대금에 한데 어우러진 동서양의 만남이 이뤄진다.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는 교계 유일의 니르바나 실내악단 단장 강형진이 초파일을 한 달여 앞두고 기획한 정기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열리는 '제4회 니르바나 실내악단' 연주회는 23일 저녁 7시30분 한전 아트홀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번 연주에는 동유럽의 명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레예프(마케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초청해 모차르트의 디베르탱, 쇼스타코비치의 챔버 심포니, 바르토크의 로망틱 민

속댄스 등을 연주한다. 또 젊은 불자 중창단 니르바나 솔리스트 싱어즈가 창작찬불가 '뫼비니에서'와 '여경삼보'를 부르는 등 동서양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우리 전통음악에 기초한 창작음악을 선보여 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는 이번에도 작곡가 유은선 씨가 만든 '대금과 실내악을 위한 지수화풍'을 대금연주자 홍종진씨가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 이외에도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14일부터 우이동 도선사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9월까지 10회에 걸쳐 첫째·셋째 일요일 참배객과 등산객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서양의 현악기와 피아노, 한국의 전통악기 대금과 가야금 등이 어우러진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는 항상 동서양 음악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북한 미술품 감상하세요

공훈예술가 등 69명 작품 한자리에

북한미술 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양)이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인사동 공평아트홀 2층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북한미술특별전'이다.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현역 공훈예술가

를 비롯해 인민예술가 69명의 작품 수십 점이 한자리에 처음 출품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화, 유화, 수묵화, 병풍, 서예, 보석화, 수예, 도자기 작품 등 82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북반 동포 돕기에 사용된다. (02)942-0144

김철우 기자 ee-ganil@buddhapia.com

서울·광주서 산사음악회

월드컵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가 서울과 광주에서 잇달아 열린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진관)는 27일 저녁 6시 대웅전 앞 무대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주로 합창단과 인기 가수들의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꾸며진다. 우선 진관사 묘음합창단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남촌' 등을 부른다. 또 불

자 국악인 김성녀씨도 출연해 '부처님오신날', '신' 노래 등 찬불가 두곡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대중가수 안치환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국악인 장사익씨의 '필레꽃' 등의 신명나는 노래와 연주는 이번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한껏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무가사(주지 광만)도 20일 저녁 7시30분 대웅전 앞에서 '광주월드컵 성공기원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세대 인기 가수 'CAN'을 비롯해 듀엣 레바라기, 현진우 등의 음성공양과 김향금 무용단의 춤공양이 마련된다. (062)383-0108



◁93세의 노령에도 손이 떨지 않아 불화 작업에 임하고 있는 만봉스님.

만봉스님 불화 전시회 24일까지

93세 고령 불구 금나나한도 등 100점 선보

단정장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이 18-24일 종로구 관훈동 백악예원에서 불화 전시회를 갖는다.

93세의 고령에도 전통불화와 단정 그리기에 대한 만봉스님의 열정은 초심 그대로다.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 단

정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금나나한도', '달마도', '관세음보살도', '오백나한도', '극락도', '십육나한병풍', '영산회상도', '팔상도', '신선도' 등 1백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석가모니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 극적인 장면을 그린 '팔상도'는 이번에 처음 선보여진 작품이어서 주목을 끈다. 또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했다는 대작 '극락도'의 화려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8세부터 붓을 잡기 시작해 85년동안 잠시도 불화 그리는 것을 중단해 본 적이 없다는 만봉스님의 작품은 모두가 신심과 수행의 상징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앞서 만난 만봉스님은 "그림은 비록 내가 그렸지만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불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을 친견하며 신심과 환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기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오랜만에 봄비가 오더니 싱그러운 신록의 향기가 대지에 가득하다. 산책 중에 거울 같이 깨끗한 못가에 앉으니, 옛사람들이 맑은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씻는다는 '觀水洗心' 고한 말이 실감났다. 마음을 맑게 하는 데는 참선이 제일이지만, 세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經)을 펴서 읽으며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다. 그래서 글(經)은 곧 거울(鏡)과 같은 거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신을 볼 수는 없지만 경전을 읽으면 그곳에 정신이 비친다. 경전은 명경(明鏡)처럼 맑은 성현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그것을 읽으면 우리들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는다. 이윽고 '달고 싶은 그 얼굴'이 맘속에 떠오르고, 그것은 곧 '되고 싶은 내 얼굴'로 변한다. 지금의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 아니다. 언젠가는 되고 싶은 그 얼굴이 바로 나의 본래면목이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내가 나를 만났을 때가 아닐까? 화장기 짙은 겉사람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가끔 공부의 상대경을 통해 소박하고 해맑은 속사람의 얼굴을 발견하고 기쁨에 넘치게 된다. 현대인의 근본 문제는 자기본연이다. '스스로 통일된 자신의 모습'은 우리들의 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반은거사(半隱居士)의 시가 생각된다.

일상사는 특별 한 게 없고 단지 내 스스로와 더불어 즐기 노라 무엇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니 가는 곳마다 어긋남 게 없다 평민과 귀족을 누가 구분하는가 언덕과 산엔 본래 먼지라곤 없다

본래 먼지라곤 없다
신용과 효용은 물고곤 나무하는 것

나는 특별히 둘째 구절(唯吾自樂)을 좋아한다. 스스로와 적하여 즐긴다는 말이 큰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나를 경계해 줄 스승을 찾아다녔다. 나의 모자람은 내 탓이 아니라 아직 스승을 만나지 못한 탓이었다. 그러다가 이 시를 읽고, 나를 때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거사는 유복한 유학자 집안 출신이었다. 그에겐 정신이 밖으로만 향하고 스스로와 벗할 수 없는 '자신'이 문제였다. 그는 석두회전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우주 만물과 벗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때 석두는 즉시 손으로 입을 가렸다. 방은은 약간 깨달은 듯 했지만, 뭔가 시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마조도일 선사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였다. 마조는 이렇게 받았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단숨에 들이킨다면 대답해주겠네.' 이 말에 방거사는 대뜸 깨달았다고 한다. 우주 만물과 벗삼지 않고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영동한 남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던 것이다. 인연이 무르익었는지 다행히도 방거사는 마조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문헌학박사**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 등 신제품 • 살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도 명가 등 있습니다. * 각 작품은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원연등용 전선 케이블 ▼

• 종 소리는 차음 공성을 구제하고 여인과 고품을 알리게 한다고 하여 옛 시공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 연꽃길 저문책 (책머리 122168호) / 갈락등 살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의외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전택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마남시 준공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